한생각 잘 쓰면 여유있게 살수 있어

☞ 19면에서 계속

에 서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여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보는 눈 높이처럼 상대 경계가 와 있음에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마음을 내기보다는 무관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계에 부닥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알아서 해!, 너만이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고 있지만 때로는 나를 앞세운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무심으로보다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조차도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란 바람 같은 것

스님, 마음공부 하기 이전에는 주인공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생각 뿐 경계에 부딪쳐도 부딪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만은 편했던 것 같았는데, 이때 편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며 마음공부를 배우고 있는 지금 근본 뿌리를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안될 때는 안 되는 것도 법이라 배우면서도 탁 놓지를 못하고 끄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불쑥불쑥 강한 분별심이 작용하여 사량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마음공부 이전보다 분별심이 더욱 생기는 것은 왜 그런지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님: 무관심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없이 산다고 해서 다 착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 할 지라도 생각을 하면서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립니다. 생각을 하되 함이 없이 생각해라.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24시간을 일을 하고 살아도 함이 없이 한 것입니다. 삶이 없이 산 것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매양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것도 고정됨이 없고 공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결 와서 휙 날라 가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공해서 삶이 없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시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 저런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의 발전력을 계기로 삼기 위해서 생긴 거지, 한 가정에서도 발전을 해야만이 살아도 아주 유유히 가게 되고 좋지 않습니까? 발전이 안 되면은 항상 편하지 않게 지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사회자: 오늘 질문 다 끝났습니다

▲스님: 그렇게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나가는 게 전부 질문일텐데요.

▲사회자: 질문이 있으면 다음 법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하하하…. 다음 법회 때요, 한 발짝 떼어나 보세요. 한 발짝 떼어놓고 한 발짝 떼어놔도 떼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책을 갔다가 쪽- 다녀서 나오면서 내 소리 좀 보세요. 여지껏 돌아왔어도 돌아온 사이가 없구나! 다리 심부름만 시킨 게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유마힐 거사나 부설거사 같은 분들은 노비 좀 달라고 가면 쫓아 보냈대요. 안 줬대요. 네가 뺑뺑 앉아서 돌아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어디를 다니려고 노비를 구하느냐고 하면서 쫓아 보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충분해야 살기가 유유하단 얘기죠.

그러니깐 그것이 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한 발짝 내 놓았으면 한 발짝 들여놓아야 그 투지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야 함이 없이 걸음걸이 없이 걸었단 얘기죠. 이거 알고 보면 참 묘합니다. 왜 옛날에 매일 하던 말도 잊어버립니까? 하하하. 왜 하던 말도 자꾸 잊어버려서 이렇죠.

가는 사이 없이 가는 거를 말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하하하. 그런데 스님이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깐, 갔다오셨는데 갔다오신 줄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깐 "이놈아! 너같이 게을러 빠져서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느냐?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네 눈에는 보이질 않았던 모양이지." 하더랍니다. 아! 참 그걸 축지법이라 그러지. 하하하.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니까 눈이 육안으로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더 넓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깐 그냥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깐 가고 오는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깐 "난 금방 갔다왔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니 거 말이 되느냐? 너 눈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깐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손을 갔다 들이대니까 "손 들이대지 말고 너의 내면을 길러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스스로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서 자기가 자기를 빠지지 않게 이끌어 가거든요. 또 지혜도 그렇구요.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깐 이 도리를 꼭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각기 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각기들 모두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제3자가 살아 줄 리도 없습니다. 제3자가 깨우쳐 줄 리도 없습니다. 제3자가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3자가 자기 눈을 심안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자기를 법안으로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불안으로 이끌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믿지 마시고 자기 자불만 믿으세요. 즉 말하자면 불성 말입니다. 그걸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붙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와 자기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존대를 붙이지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자기와 지금 자기가 만나는 거를 견성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만나고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늘을 보고 크게 웃다가 땅을 치고 울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려고 하니깐 악수를 하면 나는 손이 있지만 그대에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손하고 없는 손하고 한데 합치니깐 하나, 즉 자기 손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손이니까 자기 다리를 치면서 "너 참 착하다." "넌 참 착해." 하는 얘기가 경전에도 있듯이 '착하구나 착해' 하면서 손바닥을 쳤다는 얘깁니다.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하고
마음대로 되니 걱정없어

그래서 산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때에 따라선 어느 분이 귀신이고 어느 분이 산 분인지 갈팡질팡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전엔 안 그렇더니 요즘 죽었나 살았나 하하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걸 알고 산걸 알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은 사람도 친구이고 산사람도 친구이고 그러니깐 조금도, 또 제일 좋은 게 한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내가 그걸 지내보니까 알겠습디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아예 그냥 나를 못 생기게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후에 생각을 하니까, 요즘 생각을 하니까 키가 너무 작아서 그 틈에 끼려고 해도 좀 죄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깐요,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고 마음대로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 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죠. 옷을 찾아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어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옷이라야 되죠. 또 그러고 그거는 재생 길을, 재생 길을 다시 나와서 또 하는 거를 말하는데 재생을 하기보다는 재생을 안 하고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벌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그냥 화해서 쓰는 거예요. 화해서 말입니다. 어디를 가다가도 화해서 건지겠으면 화해서 건지고 다시금 변경을 하고 화해서 건지는 겁니다. 아주 이름 가진 사람도 화해서, 또 화하게 해주고 비켜나고 그거는 표를 안 달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세상엔 이해가 많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않는 법

옛날에 어느 사람이 하도 집에서 살기가 어렵고 귀찮으니까 산에 올라갔더랍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나 할까 하고 절을 찾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산 길이 험하니깐 영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깐 어느 노승이 한 분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이 깊은 산중에 웬일입니까?' 하니깐 '자네는 웬일인가? 깊은 산중에.' 그러시면서 '여기 내 오두막 절이 있으니 가세나. 가서 뭐래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먹고 가게 하더랍니다. 그래 가니까 정말 아주 깨끗한 집이 있더랍니다. 거기서 밥을 줘서 먹고서는 잠을 자고 깨니깐 비석 하나만 서 있고 아무 것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게 옛날 얘기 같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게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속도가 빠르게 가는 분들은, 속도가 빠르게 가면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죠. 그렇지만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뜻으로 감지가 되고요.

그러면 사시다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정에서 사시면서 왜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되나? 또 이렇게 인의롭지 못하게 싸움이 일어나나? 그런 것도 한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왜 화목하지 못하고 여여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 법회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제 말 안 하셔도 여러분이 말기는 도리만 아시면 자연적 공부가 됩니다.

※위 법문은 2001년 6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